

문장상담소(writing center)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김광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1. 머리말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영미권의 많은 대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구인 문장센터(writing center, writing lab, writing clinic)¹⁾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구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문장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기구는 20세기 초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뜻있는 영어과(English department)²⁾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문장에 관한 상담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문장 작성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매우 빠르게 문장 작성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장상담소는 현재 미국의 경우 마치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구라고도 되는 것처럼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구가 이렇게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1) 이 '문장 센터'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문장교실, 문장향상소, 문장연구소, 문장개선소, 문장도움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문장상담소(文章相談所)'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2)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가 되다. 미국에는 영어교육과도 없다.

대학에서 학문 활동을 해 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능력이 바로 문장 작성 능력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문장 능력에 관한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문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나 방법, 업무 내용 등은 학교마다 매우 다양하였다. 학교마다 자율적, 창의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운영 방법이 다양하듯이 설치된 경위나 역사, 예산 조달 방법 등도 각양각색이었다. 심지어는 상담 대상조차도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대학원생이나 교수까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필경 원래 이 기구가 탄생할 때의 배경인 자발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이러한 기구가 제도화됨으로써 국어 문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로 미국의 대학들에서 문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조사, 보고하고자 한다. 필자가 조사에 사용한 방법은 미국의 각 대학 문장 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에 대한 조사와, 그 운영자들에게 직접 전자 우편으로 설문을 보내 회신되어 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 결과들에 대한 종합 정리이다.

2 문장상담소의 의의

서구의 많은 대학, 특히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장작성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기구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날 영어가 실질적인 세계어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문장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필자 개인의 기본적인 문장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산출된 어떤 글이든지 간에 전문가에 의해 이차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자신이 쓴 글에서 저지른 잘못들을 당사자는 잘 파악해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기성인들이 그러하다면 특히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장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검토 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실천을 위한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문장상담소이다. 서구의 대학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장치가 거의 제도적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문장 능력 향상을 위한 서구의 노력이 이처럼 실천적이었던 데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된 문장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낸 지가 100년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도 국어의 문장에는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에도 국어의 문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분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지적하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었다. 이는 서구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장상담소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사실과 대조된다. 우리의 경우는 국어 문제에 관심이 깊은 분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목청을 높이기만 했을 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장력’이라는 국어 구사 능력은 개인에 따라 발전이 느린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훈련을 부여하면 향상이 가능하다. 글쓰기에 매우 숙달된 사람이라도 자신이 쓴 글을 여러 차례 퇴고하면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런 뒤에도 얼마든지 잘못이 발견될 수 있다. 더군다나 대학의 학부생이 쓰는 문장이라면 아직 학문의 깊이가 덜 갖추어진 데다가 문장 작성 능력 또한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결함 투성이의 문장을 생산해 놓고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예사이다. 종종 보고되고 있는 문장 실태에 관한 각종 조사 보고서들을 보면 일반인은 말할 나위도 없고 대학생들의 문장 역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학생들의 문장 작성 능력은 평생을 두고 낮은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문장 작성 능력이고 이 능력은 장차 사회에 나가서 써내야 할 본격적인 문장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대학생들의 문장 능력의 자립을 위하여 문장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기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가 바로 ‘문장상담소’이다.

3. 글쓰기에 왜 도움이 필요한가?

글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언어교육 이론에서 언어의 습득(acquisition)과 학습(learning)을 구별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된 것이지만, 사춘기를 넘지 않는 습득 단계에서의 글쓰기라든가, 신변잡기에 관한 가벼운 글이라면 이른바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글을 쓰라는 말이 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의 내용이 한 단계 높아져서 복잡한 사고 과정이 동원되고, 언어 표현도 그 수준에 부응할 수 있으려면 쓰기의 과정은 사뭇 달라진다. 이 때부터는 고도의 쓰기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능력은 별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다.

문장 작성 능력을 기르려면 이것만을 위한 훈련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있다. 문장을 잘 써내는 능력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전공 분야의 학업을 심도 있게 수행했다고 해서 문장력도 저절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전공에 따라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 인문, 사회 계열 같은 분야라면, 학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준 높은 쓰기 능력도 저절로 형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인문 계열의 학자들 중에는 명문장가(名文章家)도 많다. 그렇지만 국어학이나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라 하더라도 악문(惡文)을 써 놓고서 자신의 글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마찬가지로 자연 과학을 전공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평소 개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수준 높은 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글쓰기 능력은 개인의 독서 경향이나 독서량, 특히 이 방면에 관한 관심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그러나 글쓰기와 관련이 없거나 먼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 쓰기 능력은 저절로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문장 문제만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며, 그런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문장상담소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구이다.

제대로 된 문장을 작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인에게 긴요한 능력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론이 없다면, 교육 정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문장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이 방면의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문장을 검토하여 줌으로써 문장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장 작성에 임하는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글쓰는 자세에 변화를 일으켜 글쓰기의 최초 단계인 집필자 단계에서부터 문제 발생 자체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4. 대학에다 설치해야 하는 이유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세 이전의 시절에는 글쓰기 능력은 지극히 일부 지식인들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었다. 전체 인구에서 볼 때, 수준이 보장된 문장을 작성해 낼 줄 아는 지식인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사회 전체에서 지식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하여 대폭 늘어났지만 지식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문장 생산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은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늘날 거의 모든 대학에서 문장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도 지식인의 문장 작성 능력을 증시하는 풍토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장 작성 능력의 향상을 겨냥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예로는 우선 학부, 대학원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흔히 부과되는 보고서 제출이라는 형태가 있다. 여기서 좋은 학점을 받는 관건은 바로 쓰기 능력이다. 이러한 유형의 쓰기 활동을 많은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목적은 전공 지식을 함양시키자는 것도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은 기본적인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주자는 것이다. 학위 논문 제출이라는 형태도 다른 하나의 예로서 역시 쓰기 능력 함양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모두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 전문 활동을 할 때 가장 긴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글쓰기 능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더욱 진지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곳은 대학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성한 문장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단계가 대학에서부터이기 때문이다. 하급 학교들인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쓰기 교육을 하지만, 이는 대개 훈련이나 연습 차원인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쓴 글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부터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써서 제출하는 글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썼던 글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우선 그 내용이 실제로 수행된 새로운 연구의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 등 이미 연습의 수준을 넘어서 '장난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대학 강의에서 부과하는 보고서는 그것을 얼마나 잘 썼느냐에 따라 학점이 좌우되기도 하며, 학위 논문은 졸업 여부를 좌우하기까지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에서 생산되는 글들은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 순전히 쓰기 능력의 훈련을 위하여 부과하는 일기라든가 독후감, 편지 등과 같이 '한번 해 보는' 개인적 차원의 글과는 효력이 전혀 다르고 따라서 성격도 다르다. 그뿐 아니라 대학에서 요구하는 문장 작성 능력은 장차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지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 능력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능력은 학술 활동이나 저술 활동에서는 물론 언론 활동이라든가 기타 깊은 사고 수준과 논리적 천착을 글로 표현해야 하는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인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문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생산해 낼 줄 아는 능력을 다지기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베풀 가장 적절한 시점과 장소는 바로 대학이다. 대학에다 '문장상담소'같은 기구의 설치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기구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논문, 학위논문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해 준다면, 이는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우리나라 전체의 문장 수준을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이면서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5. 미국 대학의 문장상담소 운영 상황

문장상담소를 설치하자는 주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다른 나

라에서 문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미국의 여러 문장상담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들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문장상담소에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조사하였다. 다음은 이 설문에 대하여 응답을 보내 온 내용과 여러 문장상담소의 홈페이지를 검토하여 수집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1. 존치(存置) 대학

현재 조사된 바로는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문장상담소,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우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다. 1999년 10월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문장상담소(writing center)만 하더라도 316개에 달한다. 그뿐 아니라 이들의 연합체인 전국문장상담소협회(NWCA, the National Writing Centers Association) 같은 기구가 설립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 협회의 회원은 각 대학의 문장상담소들이며, 협회에서는 필요한 업무 연락, 문장상담소 운영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외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 대학 작문과 의사소통에 관한 학술회의(Conference 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실적 : Nashville, 1994 / Washington, D.C., 1995 / Milwaukee, 1996 / Phoenix, 1997 / Chicago, 1998

예정 : Atlanta, 1999 / Minneapolis, 2000 / Denver 2001 / Chicago 2002 / New York 2003 / TBA 2004 / TBA 2005 / Chicago 2006 / New York 2007

- 학생 작문 상담요원 학술회의(National Conference on Peer Tutoring in Writing) Plattsburgh, NY 1998 / Penn State, 1999

전국문장센터협회(NWCA)는 1983년에 여러 문장상담소들 사이의 공개적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이 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규 대학, 2년제 대학, 고등학교의 문장상담소 소장, 상담요원들이다. 이 협회는 지역 협회에서 보낸 위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한

편, 문장상담소는 별도의 지역 협회(Regional Writing Center Association)에 소속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협회들이 있다.

East Central WCA, Northeast WCA, South Central WCA, Rocky Mountain WCA, Midwest WCA, CUNY WCA, Southeastern WCA, Michigan WCA, Mid-Atlantic WCA, South Carolina WCA, Pacific Coast WCA, Texas WCA, European WCA, Northern California WCA

5.2. 존치 과정

미국의 문장상담소는 20세기 초 미국의 몇 대학 영어과(English department, 우리나라로 치면 국문과)에서 몇몇 뜻 있는 교수들이 문장 작성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해 주기 시작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담 활동이 학생들의 문장 작성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주며, 논문 작성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대학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구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문장상담소가 없는 대학은 거의 없으며, 운영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학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다. 결국 문장상담소들은 영문과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학의 조직상으로 볼 때에도 영어과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인문대학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3. 존치 유형 - 전통적 형태, 온라인 형태

현재 문장상담소는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대학 내에 실제로 사무실을 두고 상담요원이 수요자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전통적인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문장상담소에서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문장상담소를 다시 개설하여 온라인 형태로 상담에 임하는 경우이다. 이 역시 봉사 정신이 강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운영하다가 후에 영어과나 본부로부터 지원

을 받으면서 확산된 것이라고 한다. 사이버 문장상담소의 경우는 특히 OWL(on-line writing lab)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편리성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합회까지 조직되어 있다. 이 사이버 문장상담소들은 대개 OWL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시켜 올빼미 문양을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장센터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이버 문장상담소에서는 문장 작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 수단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한 예를 보이면, 하버드 대학 문장상담소 같은 곳에서는 웹스터 사전에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접근하여 단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로제의 시소러스, 바틀릿(Bartlett)의 명구 인용사전, 브리태니커 온라인 사전(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등을 제공하는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도움들을 제공하고 있다.

5.4. 운영 주체

문장상담소가 역사적으로 영어과 교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듯이 대부분의 경우 영어과와 깊은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운영된다. 또 시작이 자발적이었던 것처럼 운영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주관 부서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영어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인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는 등 매우 다양하다. 주로 문장 작성 능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영어학 전공 교수들이나 문장상담소만을 위하여 특별히 선발된 영어학 전공 특별 연구원들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 실제 상담 업무는 문장상담소에서 선발하거나 육성해 낸 대학원생들이 주로 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 상급생들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시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영어 문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5.5. 이용자 및 이용 방법

미국의 경우, 문장상담소가 일반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는 생각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장상담소를 이용한다.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모두 이용자가 되지만, 학부생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교수가 문장상담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의무 이용 여부도 학교에 따라 다양하다. 정식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문장상담소의 상담필 도장을 필수적으로 받아와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도교수들이 그런 과정을 밟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만 하는 곳도 있다. 또는 모든 것을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두는 곳도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문장상담소를 학생뿐 아니라 학교의 직원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까지도 개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5.6. 상담 요원(tutor)

상담 요원으로는 영어과 소속 대학원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부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일정한 훈련을 거쳐 상담지도자로 활용하기도 한다. 요원을 선발할 때에도 학생들이 쓴 작문을 평가하고 면담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선발된 요원들은 일정한 훈련을 거쳐 상담에 임하게 되는데, 훈련 과목으로는 문장상담소 실무 이론(Writing Center Theory), 문장교수법(Writing Pedagogy) 등이 있다.

상담지도자의 수(數)도 학교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전임교수, 전문 조교, 파트타임 조교 등으로 학교나 문장상담소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학교에 따라 영어과 대학원생들이 무보수 조교가 되어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그 활동의 대가로 신뢰와 명성을 얻게 된다.

5.7. 상담 방법

일대일 면담 방식이 가장 많다. 대부분 미리 예약을 통해 상담요원을 배정 받은 뒤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만나게 된다. 일대일 면담 방식에서는 대개 1회당 30분-50분 동안 상담한다. 대개의 경우 학기 중에만 운영하며 방학 중에는 대부분 쉰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이 보

통이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작성하고자 하는 과제의 사본을 미리 제출하여 상담에 대비한다. 이들은 대개 필요한 참고서적을 독파했을 것, 과제에 대한 구상이나 준비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여 있을 것 등을 기본적으로 요구받는다. 대부분의 상담에서는 문장을 직접 고쳐주지는 않으며, 잘못된 부분을 적절히 지적해 줌으로써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 스스로 문장 생산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방식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원고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논평을 회송하는 방식이다. 전산망이 발전해 감에 따라 상담 자료 및 지침서 등을 인터넷에 올려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도 늘어가고 있다. 문법교정 상호작용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 제공하여 학생들이 쓴 글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문장상담소에 따라서는 좀더 수준 높은 내용까지 다루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나 논문의 아이디어나 주제 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면서, 이를 한 편의 완결된 문서가 되도록 상담해 주는 단계가 그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피상담자가 스스로 깨닫고 편안한 느낌으로 작문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대개 자신들의 문장 실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초보자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5.8. 상담 내용

상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대학에서 학술 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작문 활동이다. 교양 과목의 작문 과제, 전공 과목 보고서, 학위 논문 작성 준비에서 교정에 이르기까지 작문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모두 상담의 내용이 된다. 이력서, 이력서 봉투 쓰기,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연구계획서 등까지도 상담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논문의 주제, 조직, 전개 방법, 편집 기술 향상을 위한 내용, 논문의 아이디어 생성법까지 상담해 주는 경우도

있다. 문법적 문장, 영어 문장으로서의 완벽성 등에 대해서도 주로 상담을 하지만, 원리 중심으로 지적해 주되, 직접 고쳐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문장을 처리할 줄 아는 힘을 길러 주기 위해서이다. 단계별로 나누어 문장작성 방법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1단계 - 작문 일반, 2단계 - 문학, 3단계 - 창조적 글쓰기, 공학적, 실무적 글쓰기' 등과 같은 예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교정을 보는 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문장상담소도 많다. 초고에서 구두점, 철자법, 문장 구조 등의 물리적인 잘못들이 확인되면 그것들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문서작성기(워드프로세서) 사용에 관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문장력의 향상을 위하여 미국 대학의 문장상담소들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다움

- 규범, 단어, 의미, 텍스트성 등
- 구문, 문장의 결속성, 문법적 오류
- 문체
- 교정 기술

논문다움

- 주제, 구조, 논거 제시 방법, 아이디어의 적절성
- 글의 조직
- 자료 조사 방법
- 아이디어의 생성
- 화제의 발견

쓰기 보조 수단 사용법

- 문서처리 방법
- 문서작성기 사용법

- 도서관 이용법 안내
- 워드프로세서 작업 및 편집 작업

시설이 잘 갖추어진 문장상담소에서는 컴퓨터를 여러 대 비치해 놓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작문에 대한 첨삭 지도뿐 아니라 작문과 관계되는 과목을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주제별, 문종별로 작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작문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교수나 학교·차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문장상담소의 강사가 직접 출장을 나가 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의를 맡을 작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대개 2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특이한 사례로, 학생들이 쓴 실제 작문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다.

5.9. 운영비 조달 방법

이 기구가 자발적인 동기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도 여러 형태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과가 속해 있는 대학, 예를 들면 인문대학에서 지원을 받는다. 학교에 따라 영어과에서, 또는 학생처에서, 또는 본부(교무처)에서 지원 받는 등 다양하다. 어떤 학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학생자치회비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North Arizona 대학처럼 카네기 재단의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대학 예산에서, 다른 일부는 학생자치회비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Texas Tech University 같은 경우처럼 학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이용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지불한다. 이 경비는 학교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수납하여 교무처(Office of the Provost)로부터 할당받는다.

문장상담소는 현재 미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문 활동을 위하여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기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존치 여부를 의심하는 대학은 없다. 이에 따라 대학 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운영비 문제로 특별한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5.10. 상담요원 수당

상담요원에게는 대부분의 문장상담소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 비용은 대개 아르바이트의 성격에 준하는 것으로 문장상담소가 요구하는 문장상담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代價)를 받는 형식이다. 문장상담소의 상담요원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문장을 읽고 상담을 해 주는 매우 학술적인 아르바이트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학생들이 전공 분야와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문장상담 요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봉사도 하면서 전공도 살리는 등 자기 발전의 기회가 큰 일에 종사한다는 데에 대하여 커다란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5.11. 이용자의 부담

이용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방식도 무료에서부터 실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재학생은 무료이고 재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실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조건 약간의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부담하는 액수도 다양하다. 상담 대상이 되는 문장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쓴 것일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하며, 영어가 제2 언어인 학생이 쓴 문장인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6. 사례 연구 - 문장상담소의 실제 활동 상황

문장상담소에서 하는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몇 문장센터의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은 The Andrews University Writing Center, Ball State University Writing Cente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Writing Center, Purdue University Writing Lab 등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6.1. 정신

쓰기 능력은 학부 및 대학원에서 학업 활동을 하는 동안 필수적인 기능이며, 쓰기 활동은 분석적인 사고 활동을 위하여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쓰기 활동은 모든 학구적 훈련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작업이며, 학생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문장 작성 능력은 곧 학문 수행 능력의 중요한 일부이다.

6.2. 목표

문장상담소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논문 쓰기 과정을 포함하는 초보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쓰기 교육의 최신 기술을 포함하는 상급 쓰기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열려 있는 일반 쓰기 강좌를 운용하며, 이에 더하여 특수 전공 과목의 쓰기 과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하는 자료 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문장상담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교수나 대학원생을 막론하고 쓰기 능력이 자신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 능력은 또한 학부 생활을 시작하여 끝낼 때까지 학부생의 학문적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도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문장상담소에서는 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맡은 종신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상담원, 이와 동등한 급의 학부생 상담원 등이 상담과 강좌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6.3. 세미나 개최

몇몇 문장상담소(에서)는 헌신적인 연구원 및 대학원생 상담원들을 중심으로 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운용한다. 세미나의 내용은 쓰기 이론 및 쓰기 교육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세미나에는 전국의 쓰기 이론 및 쓰기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집단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쓰기 능력 향상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 한 문장상담소의 세미나에는 현재까지 인류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교육학과, 영문과, 역사과, 언어학과, 수학과, 심리학과, 여성학과 등 다양한 학과들로부터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바 있다.

세미나는 학부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 연구원이나 교수들을 장기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쓰기 지도자' 군단으로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인력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자신의 소속 대학으로 돌아가면 훈련 받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쓰기 강좌를 담당할 수 있다.

6.4. 연례 만찬

문장상담소에서는 연례 만찬을 열어 전현직 연구원들을 초청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대학에서 쓰기 활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행한 업적, 혁신 사례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6.5. 연구원(研究員) 행사

세미나가 끝나면 거기에 제공되었던 많은 자료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따라서 피교육자들은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모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행사를 준비해 두고 있다. 행사는 간단한 점심 식사, 심포지엄, 공개 강의 등을 주관하는 것인데, 문장상담소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직접 운용한다. 이 행사에서는 쓰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주제는 주로 전공별로 또는 일반 대학 학생들에게 필요한 작문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내용들이다.

6.6. 5월 세미나

매년 5월에 쓰기 교육의 특별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2주일에 걸친 세미나를 연다.

6.7.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공동 연구

한 문장상담소는 대학에서 쓰기 지도 방법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위하여 교수 발전기금으로부터 매년 6천불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 연구비는 교수학습방법 연구소와 문장상담소의 협동 연구 형태로 지불된다.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 강좌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원들은 활력을 얻으며, 실제로 1학년, 2학년 강좌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관한 질적 수준이라든가, 쓰기 지도에서 대학생들이 길러야 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6.8.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

6.8.1. 세미나

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된 대학원생 상담요원들은 세미나에서 교수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 이들이 학창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작문지도'는 다른 전문 영역들에서 수행하는 일과는 현저하게 다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로서, 지도 요원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양의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시켜 준다. 상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연구원들은 다른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게 되며, 결국 취업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6.8.2. 고급 수준 강좌

훈련 과목 중에는 고급 수준의 작문 강좌도 있다. 이 강좌에서는 작문 과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지도 방법, 비평문 쓰기, 평가, 학생들과의 학술 토론 등에 관한 안내를 해 준다.

6.9. 상담 요원

상담 요원으로는 주로 대학원생들이 선발되어 활약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과에 소속되어 학업을 계속하면서 하급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쓰기 지도 활동에 투입된다. 또한 이들은 문장상담소의 파견 연구원 자격으로 활동한다. 최근의 주요 업적 중의 하나는 대규모 심리학개론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쓰기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학원생 연구원과 교수가 함께 한 협동 연구였다.

6.10. 쓰기 훈련

쓰기 훈련은 개인교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신들의 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받기를 위하여 이 문장 센터에 등록한 학생들과 약속 시간을 정하여 하루 30분씩 만난다. 상담요원들은 특수한 영어 강좌의 요청에 협조하여 1학년에서 요구되는 쓰기 강의를 대신하기도 한다.

6.11. 학부 상담요원 프로그램

학부생들 중에서 상담요원을 선발하여 같은 학부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작문을 지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6.12. 온라인 문장 상담

이러한 작문 상담활동은 최근에 발전한 컴퓨터 망의 도움을 받아 일대일 면담과 동일한 수준의 온라인 상담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때로는 그 결과가 직접 면담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일부 학부 상담원들을 온라인 상담원으로 배당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도록 한다.

7. 맺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문장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문장상담소'라는 기구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대학들에도 이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문장상담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사항은 이 기구가 어떤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주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개설된 기구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마치 대학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인 것처럼 설치,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실용주의 사회에서 문장상담소라는 기구가 이처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이 기구가 대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7.1. 제도화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문장상담소를 도입하려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즉 법률을 만드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자발적으로 설치되도록 권장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좀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기구의 설치가 법률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화하는 쪽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국어의 문장 실태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어의 문장은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의 문장 작성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문장 작성능력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각 대학에다 의무적으로 문장상담소를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문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실제로 문장의 수준이 향상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한결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상담소는 국어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이면서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수요자들에게 '논문의 아이디어, 논문의 구조, 규범, 어휘 사용, 문법성, 텍스트성' 등 국어문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쓴 논문을 정식으로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기구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자체로 일단 논문 작성에 임하는 집필 태도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만으로도 국어의 문장 실태는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면 문장을 검토, 심의, 상담할 인력이 상당수 필요하게 되므로, 대학 내에서 일정한 수의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

7.2. 수행 방법

문장상담소를 운영하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소극적인 방법이란 문장상담소를 설치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운영 초기에는 현실적인 여건들로 말미암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학생들이 쓴 논문을 먼저 문장상담소에서 검토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방법이 불가피한 이유는 문장상담소에 대한 인식의 폭이 아직 넓지 못하다는 점도 있을 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경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방법이란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정식 논문 심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문장상담소에서 국어 문장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장상담소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는 논문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뒤 재심을 받게 한다. 이 방법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문장상담소의 역할이 인정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7.3. 예산

문장상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자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구소들에 비하면 그 예산 부담은 한결 가볍다. 수혜자들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차 문장상담소가 학생들의 기초 학문 활동을 지원해 주는 필수적인 기구로 인식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는 문장상담소가 도서관이나 기숙사와 같은 차원의 기구로서 학생들의 부담이 없이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차원으로 승격시켜야 하며, 예산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의 대학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문장상담소를 우리 대학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주로 미국의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장상담소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이런 기구가 언제 실현될 것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이 글에서 제기한 문장상담소의 필요성과 인식이 일단 확산된다면 그것으로 절반은 성공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문장상담소 설치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뜻있는 교수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아도 좋다. 제도화를 추구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법에 관해서는 어디선가 일률적으로 정한 규칙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학교 및 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선례와 참고 자료가 있으므로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참고 자료

- <http://departments.colgate.edu/diw/NWCA.html> (국립 문장상답소 협회).
<http://departments.colgate.edu/diw/NWCA/NWCAInfo.html> #Regional
(지역별 문장상답소 협회).
<http://www.lsa.umich.edu/ecb/help/owl.html> : University of Michigan's
Online Writing and Learning page.
<http://owl.english.purdue.edu/our-lab/introduction.html> : Purdue University
Writing Lab.